

# 공공도서관과 공유경제

- 유형의 공유로부터 무형의 접근으로 -

## Public Libraries and the Sharing Economy: From Tangible Sharing to Intangible Access

이 승 민 (Seungmin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및 결론 |
| 3. 연구 방법  |            |

### 초 록

공유경제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자원의 소유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의 상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공유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형성에 대한 기제로 작용하는 반면,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 및 참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장서의 활용은 지식, 정보, 개인적 경험과 같은 무형 자원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도서관 소장 자원의 대출 이용은 공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한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The concept of the sharing economy, which has shifted the economic paradigm from possession to access to resources, is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and current roles of public libraries. Thus,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library use and the sharing economy.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y programs serves as a motivational factor for satisfaction with and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while the use of public library facilities and equipment is correlated with attitudes toward and particip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he use of library collections positively influences sharing intangible resources such as knowledge, information, and personal experience. By contrast, checking out library resources negatively influences the recognition of economic benefits from sharing, which is contrary to claims of library communities. Based on these results, public libraries should aim to have a complementary effect on the sharing economy founded not only on information networks but also human networks grounded in social relationships.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유경제, 자원 공유, 도서관 소장 자료, 도서관 프로그램

Public Library, Sharing economy, Resource sharing, Library resource, Library program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논문접수일자: 2022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151-173,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15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의 소유권 개념은 시장에서 물적 재화를 획득하여 타인을 배제한 채 이를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물적 재화를 소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교환, 공유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적 재화의 소유권보다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공유와 접근권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고운승, 2014, 7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환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전통적인 경제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Lessig, 2008). 특히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소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진화하는 정보환경을 기반으로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활용, 커뮤니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ICT, 휴먼 네트워크 등과 같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적, 사회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공공도서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고 지원해 왔

던 사회적 역할이며,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정보 및 정보자원의 제공을 뛰어넘어 사회적 공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보 및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 시스템과의 차이를 규명하거나, 공유경제의 요인들을 분석 혹은 이들 요인들 사이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환경인 사회적 신뢰, 커뮤니티 형성, 관련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공유경제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의 사회적 순기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공유경제의 진화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share)는 사전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Merriam-Webster Dictionary, 2019). 이는 하나의 개체를 나누어 갖는 분배와는 달리 해당 개체 혹은 정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같은 형태로 복제하여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유의 개념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에서는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공유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2조 1항). 이러한 공유의 개념이 경제의 개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이 공유경제이며, 현재 공유경제는 ICT를 기반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교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Miller, 2019).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로 대두되었으며(Sung, Kim, & Lee, 2018, 2), 이후 2008년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경제 위기는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의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경제적인 문제의 발생은 재화의 소유 및 과소비에서 합리적인 소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ICT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유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였으며(Cusumano, 2015), 개인간 거래 및 타인에 대한 신뢰, 평판 조회 등 협력적 소비 수단을 편리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Hamari, Shoklint, & Ukkonen, 2016; Ozanne & Ballantine, 2010).

이러한 공유경제 체계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에서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온 것이다. 초창기의 공유경제 시스템은 각 개인이 중고 시장(flee market)이나 개인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물적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잉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ng, Kim, & Lee, 2018, 1-2).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 및 웹 커뮤니티의 확장과 함께 현재의 공유경제는 정보, 개인의 경험, 기술 등 무형의 인적, 정보적 자원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의 공유경제 개념에서 정보는 곧 재화이기 때문에(Iqbal, Toulson, & Tweed, 2015), 이에 따라 물리적 재화의 공유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관리, 개인 프로필 공유에 이르기까지 공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198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Harvard University의 Martin Wietzman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The Share Economy〉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Wietzman, 1984). 하지만 당시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로 이해되었으며, 현재 통용되는 공유경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1년, Jeremy Rifkin은 〈The Age of Access〉에서 현재의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을 주창하였다. 즉, 소유가 아닌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Rifkin, 2001), 재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재화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창기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Harvard University의 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현재의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Lessig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사람들이 가격이나 재화에 기반을 둔 교환을 하지 않고, 가치를 창조할 목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하였다(Lessig, 2008). 또한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을 ICT,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으로도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 2.2 공유경제의 사회적 함의

공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인간 중심의 새로운 소비 방식이며(Palos-Sanchez & Correia, 2018, 87), 공유에 기반한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거래와 소비 모델을 확장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Albinsson & Perera, 2012, 308). 하지만 이러한 공유 및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개념이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면서,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경제가 지닌 특성을 논하는 연구도 다수 수행되어 왔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Botsman & Rogers, 2010; Biswas & Pahwa,

2015; Kester, 2017), 이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Botsman & Rogers, 2010). 또한 Gansky(2010)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재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으로 공유경제를 지칭하였으며, IT 기술을 통한 정보공유를 공유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언급하였다. 이들 정의는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재화를 소유가 아닌 공유하고 접근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상호간의 재화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Matofska(2016)는 공유경제를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socio-economic ecosystem)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undarajan(2016)은 공유경제를 모든 사람들이 유·무형의 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유경제의 경제적 의미를 주장하였다. 또한 Belk(2007, 127)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잉여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대안적인 사회적 흐름으로 공유경제를 정의하였다. 이들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전체적인 편익을 증진하는 경제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협력적 소비가 공유

경제의 형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의 공유경제는 개인의 노동력이나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공유는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보 네트워크 및 휴먼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보급은 정보의 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3 공유경제의 요인 및 요소

공유경제는 ICT, 소셜 네트워크 등의 정보 네트워크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상호 신뢰, 협력적 소비와 같은 휴먼 네트워크 측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에 여러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Botsman & Rogers(2010)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인 목적을 위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기술 등과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경제모델로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나 환경적 문제, 경제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Böcker & Meelen(2017)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

는 동기 요인을 제공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공유경제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이지만,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개념에 기반해서 살펴보면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요인들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네트워크화 된 정보환경에서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및 ICT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범위가 보다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는 공유경제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Bellotti et al., 2015).

사회적 신뢰 이외에도,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 역시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Gansky, 2010, 164). Hamari, Sjöklint, & Ukkonen(2015)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즐거움, 평판, 경제적 혜택의 네 가치를 공유경제의 동기요인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즐거움과 경제적 혜택은 협력적 소비의 사용의도에, 지속 가능성과 즐거움은 협력적 소비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요인으로 공유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혹은 이윤의 창출을 언급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amberton & Rose, 2012; Ikkala &

Lampinen, 2015).

이와 함께, 공유 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정보 네트워크를 언급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Evans & Schmalensee, 2008; Stremersch et al., 2007), 정보 네트워크의 이용도가 공유경제 참여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Davis, 1993; Hawlitschek et al., 2016).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유를 통해 얻는 즐거움 및 만족감, 사회적 경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의 활용, 비용의 절감, 공공서비스 정신, 사회적 가치의 창출 등이 공유경제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요인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등 인적 요소, 정보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적 요소, 개인의 경제적 이득 등의 경제적 요소, 새로운 가치 창출이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요소, 즐거움이나 평판 등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4 공유경제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현재와 같이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재화의 소유에서 접근권의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공유경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유·무형의 재화를 상호간에 공유하는데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 및 활용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적 환경을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공유경제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은 수세기에 걸쳐 도서자료 등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설비와 공간 등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Garlick(2014)은 도서관이 공유경제를 시작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을 통해 책이 이용자 사이에 공유되고, 그 공유의 가치는 무한하며 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Mies(2014) 또한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미디어, 각종 도구 등을 공유해 왔으며, 따라서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도서와 같은 정보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초기 모델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보자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장서는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도서관의 소장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Illinois Library Association, 2015, 2).

최근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나 장난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구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과 같은 공유를 위

한 도서관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이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이들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개념을 진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의 기회가 기존의 정보자원 중심에서 인적, 물리적 자원으로까지 진화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도서관계에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오고 있다.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2013)에서는 도서관과 사서가 정보자원 및 공간의 공유에 있어서 그 잠재력과 가치를 증명해 온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정보를 중심축으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의 진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만 공유경제의 내용이 디지털 기기, 교통, 도구, 교육, 장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도 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18)은 공유경제를 미래도서관의 진화 방향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소개하는 등 공유경제를 향후 도서관 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이미 추구, 실현하고 있는 기관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자원과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가치를 높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3).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 관계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에서의 상호간의 신뢰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평판, 개인 프로필 등에 기반을 하게 될 것이다(Sacca, 2014). 즉, 공유되는 자원 및 이를 공유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공유경제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이들 공유경제 구성요소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적, 사회적 편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 구성요소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도구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향후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과 공유경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논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유경제 관련 실증 연구는 P2P, 자동차 공유, 숙박 공유 등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기반 가운데 하나로서의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유경제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도서관이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변수 설정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공유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공유경제의 사회적 활성화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및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관련한 요인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공유경제의 형성 및 활성화에 있어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유를 통한 만족도 및 경제적 이득,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으로 추출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이와 함께,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관 제공 공유경제 서비스와 개인 사이의 공유에 대한 선호도, 유형의 자원 혹은 무형의 자원 공유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관련된 요인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유·무형의 재화를 공유하는 측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크게 공공도서관의 이용 목적과 공공도서관 이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은 다시 소장자료의 대출,

〈표 1〉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

설정 변수	공유경제 요인	선행연구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	•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	Bellotti et al.(2015) Ikkala & Lampinen(2015) Evans & Schmalensee(2008) Hawlitschek et al.(2016) Stremersch et al.(2007)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편익	• 사회적 편익	Gansky(2010) Hamari, Sjöklint, & Ukkonen(2015)
공유경제를 통한 만족도	• 즐거움, 만족도	Gansky(2010) Hamari, Sjöklint, & Ukkonen(2015) Davis(1993)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	• 경제적 혜택	Gansky(2010) Lamberton & Rose(2012) Ikkala & Lampinen(2015) Hamari, Sjöklint, & Ukkonen(2015)
공유경제 이용 행태	• 유형 혹은 무형 자원 선호도 • 기관 혹은 개인 공유 선호도 • 공유경제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정도,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이용으로 구분되며, 공공도서관 이용 방식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온라인 이용과 오프라인 이용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의 공유경제 이용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과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방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공공도서관 이용 방식에 따라 공유경제 이용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가계수입, 학력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컴퓨터 및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친숙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 3.2 데이터 수집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

화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변수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총 29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부정확하게 작성된 2부를 제외한 총 297부의 설문 내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된 결과, 공유경제의 7개 핵심 요인 및 6개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요인과 관련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통계적 변수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에 대해서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Cronbach's alpha = .826).

〈표 2〉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 분석

구분	설문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공유경제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	7	.741
	사회적 편익		
	즐거움 및 만족감		
	경제적 혜택		
	유형-무형 선호도		
	기관-개인 선호도		
	공유경제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6	.732
	온라인-오프라인 선호도		
	소장자료 대출 빈도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 설비 이용		
	공공도서관 자원에 대한 신뢰도		

## 4. 분석 결과

### 4.1 인구통계적 분석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총 297명 중 성별은 남자 125명(42.1%), 여자 172명(5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수준은 학사학위 소

지자가 127명(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익숙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N=105, 76.1%), 현재의 공유경제 요인 중 하나인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항목		N(%)
성별	남	125(42.1%)
	여	172(57.9%)
계		297(100.0%)
연령	20-29	93(31.3%)
	30-39	96(32.3%)
	40-49	88(29.6%)
	50-59	13(4.4%)
	60대 이상	7(2.4%)
계		297(100.0%)
가계수입	2천만원 미만	33(11.1%)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61(20.6%)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84(28.4%)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8(19.6%)
	8천만원 이상	60(20.3%)
계		296(100.0)
교육수준	고졸	43(14.5%)
	전문대학졸	23(7.7%)
	대학재학	83(27.9%)
	학사	127(42.8%)
	석사	16(5.4%)
	박사	5(1.7%)
계		297(100.0%)
컴퓨터 친숙도	매우 익숙하지 않음	1(0.3%)
	익숙하지 않음	17(5.7%)
	보통	53(17.8%)
	익숙함	113(45.1%)
	매우 익숙함	92(31.0%)
계		297(100.0%)

4.2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공유경제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공유경제는 정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련된 정보의 입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보의 허브로서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로 진화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공

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공유경제의 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도가 높을수록 공유경제에 참여한 경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99, p<0.01$ ). 또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도( $r=.161, p<0.01$ ), 공공도서관 시설 및 설비의 이용( $r=.165, p<0.01$ ), 공공도서관 관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 $r=.215, p<0.01$ )와 공유경제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에

〈표 4〉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공유경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					
		방문빈도	온·오프라인 선호도	대출빈도	프로그램 참여	설비이용	신뢰도
서비스 이용경험	Pearson 상관	.299**	.096	.337**	.330**	.333**	.150**
	유의확률 (양측)	.000	.097	.000	.000	.000	.010
	N	297	297	297	297	297	297
경제적 이익	Pearson 상관	.177**	.054	.072	.161**	.165**	.090
	유의확률 (양측)	.002	.351	.214	.006	.004	.122
	N	297	297	297	297	297	297
공유 신뢰도	Pearson 상관	.207**	.006	.190**	.318**	.295**	.215**
	유의확률 (양측)	.000	.915	.001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297	297
공유 만족도	Pearson 상관	.229**	-.005	.206**	.361**	.294**	.178**
	유의확률 (양측)	.000	.930	.000	.000	.000	.002
	N	297	297	297	297	297	297
유무형 선호도	Pearson 상관	-.048	.049	.055	-.067	-.039	-.042
	유의확률 (양측)	.413	.397	.341	.248	.504	.467
	N	296	296	296	296	296	296
기업·개인 선호도	Pearson 상관	.031	.137*	.049	.094	.029	-.045
	유의확률 (양측)	.592	.019	.404	.106	.616	.441
	N	296	296	296	296	296	296
사회적 편익 인식	Pearson 상관	.092	-.045	.015	.006	.094	.265**
	유의확률 (양측)	.115	.436	.797	.914	.106	.000
	N	297	297	297	297	297	297

\*  $p<0.05$ , \*\*  $p<0.01$

대한 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공유경제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과 유의미하지 않은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 이용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정보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공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 측면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와 개인간 공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r=.137, p<0.05$ ).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익숙한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간 공유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가운데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대출 빈도,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 공공도서관 자원에 대한 신뢰도는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공유경제 실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소장자료의 대출은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현재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출해서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상의 정보에 비해 이용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 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 등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 혹은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정보적 역할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소장자료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환경의 진화에 대응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공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4.3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공유경제 요인 사이의 영향 관계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공유경제 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공유경제에의 참여 및 이의 활성화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요인들과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 사이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3.1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정보자원이나 설비를 개별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있어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을 많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유경제가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34, p=.043$ ). 즉,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유·무형의 자원 및 서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공유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공유경제에의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대출은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2.169, p=.031$ ). 부정적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큼 큰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beta=-.178$ ),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출하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환경의 급속한 진화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현재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에 접근하여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역시 전자책을 소장자료의 범주에 포함시켜 접근의 개념에 기반한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장자료의 대출은 여전히 인쇄형태 자료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물리적 소

〈표 5〉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397	.369		6.489	.000
	방문빈도	.138	.068	.166	2.034	.043
	온·오프라인 선호도	.040	.035	.069	1.154	.249
	대출빈도	-.133	.061	-.178	-2.169	.031
	프로그램 참여	.067	.052	.091	1.289	.199
	설비이용	.037	.050	.052	.745	.457
	신뢰도	-.009	.092	-.007	-.092	.927

a. 종속변수: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중요도

장자료의 대출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공공도서관 방문 시간 및 대출반납의 절차 등이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 역시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공유경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재까지의 도서관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소장자료, 시설, 설비의 공유가 가져오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물적 자원과 함께 인적, 정보적 자원 또한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4.3.2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유경제를 통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공유 및 재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역시 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만족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 가운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054, p=.000$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 및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및 공유가 각 개인의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형성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 빈도 및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은 공유경제를 통한 만족감

〈표 6〉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를 통한 만족도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866	.321		5.812	.000
	방문빈도	.033	.059	.043	.560	.576
	온·오프라인 선호도	-.008	.030	-.014	-.254	.799
	대출빈도	-.058	.053	-.084	-1.084	.279
	프로그램 참여	.185	.046	.269	4.054	.000
	설비이용	.062	.043	.094	1.440	.151
	신뢰도	.049	.080	.041	.615	.539

a. 종속변수: 공유경제를 통해 느끼는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제가 되는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3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편익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잉여자원의 공유 및 재활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대, 경제활동 참여에의 기회 증대 등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사회적 호혜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공유경제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중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회적 편익에 기여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

인들이 공유경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데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공유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혜택 및 사회적 호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3.4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유 자원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는 다른 사람 혹은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유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표 7>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편익 인식도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계수 <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203	.307		7.166	.000
	방문빈도	.009	.056	.013	.158	.875
	온·오프라인 선호도	.021	.029	.042	.715	.475
	대출빈도	-.089	.051	-.139	-1.750	.081
	프로그램 참여	-.042	.044	-.067	-.972	.332
	설비이용	-.009	.041	-.014	-.212	.832
	신뢰도	.118	.077	.106	1.536	.126

a. 종속변수: 공유경제의 사회적 편익 증대에 대한 인식도

한다. 이 신뢰는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신뢰성이 확보된 자원을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공유경제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공유경제를 통해 공유되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공유경제를 통해 입수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92, p=.002$ ). 이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구축된 사회적 관계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되는 자원의 신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형성된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는 공유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공유경

제를 통해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3.5 공공도서관 이용이 공유경제 이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 상이한 이용 방식에 따라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효과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들이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확인하였다(〈표 9〉 참조).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은 공유경제에의 참여 및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50, p=.025$ ).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다양한 설비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이의 이용은 사람들의 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공유경

〈표 8〉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429	.326		4.377	.000
	방문빈도	.007	.060	.009	.115	.909
	온·오프라인 선호도	.008	.031	.015	.266	.791
	대출빈도	-.049	.054	-.071	-.914	.361
	프로그램 참여	.143	.046	.205	3.092	.002
	설비이용	.074	.044	.109	1.672	.096
	신뢰도	.069	.082	.057	.844	.399

a. 종속변수: 공유경제에서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



〈표 9〉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 이용 경험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계수 <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51	.485		.517	.606
	방문빈도	.035	.089	.030	.396	.693
	온·오프라인 선호도	.087	.046	.106	1.895	.059
	대출빈도	.133	.080	.127	1.653	.100
	프로그램 참여	.124	.069	.118	1.799	.073
	설비이용	.147	.065	.146	2.250	.025
	신뢰도	.021	.121	.012	.174	.862

a. 종속변수: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과 무형의 자원 공유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계수 <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3.924	.652		6.022	.000
	방문빈도	-.147	.120	-.102	-1.224	.222
	온·오프라인 선호도	.048	.061	.048	.782	.435
	대출빈도	.284	.109	.220	2.612	.009
	프로그램 참여	-.138	.092	-.107	-1.497	.135
	설비이용	.043	.088	.034	.484	.628
	신뢰도	.043	.163	.019	.261	.794

a. 종속변수: 공유경제를 통한 유무형의 자원 공유에 대한 선호도

제에의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공유하는 자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대출 이용이 지식과 정보, 기술, 경험 등의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데 있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612, p=.009)(〈표 10〉 참조). 이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이

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이지만, 이 과정에서 연계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다른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요구의 확장이 공유경제를 통한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 이외에 지식과 정보 등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여 그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논의 및 결론

현재의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의 발전,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웹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확장 등으로 인해 하나의 대규모적인 경제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현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사회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휴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과의 자원의 공유와 재 활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 공동의 재산이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유경제의 사회적 역할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 온 기존의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의 정보적, 사회적 역할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 정보자원의 공유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현재 커뮤니티센터로 진화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과 시설, 설비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식, 경험, 기술의 공유와 연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진화하는 기능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공유의 의도를 상승시키고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유경제 역시 사람들의 신뢰, 휴먼 네트워크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공유경제 시스템과 연계되고 상호 보완을 이룸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적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 이용의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소장자료의 대출 이용은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선도해 왔다는 도서관계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공유경제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정보자원의 소장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장자료 확충 이외에도, 폭넓은 정보 접

근 경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나 정보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혹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완전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로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정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대출 이용은 물리적인 자원보다는 지식과 정보, 경험 기술 등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구, 시설, 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재화의 공유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재화의 공유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경험, 기술 등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재화와 관련된 정보를 연계하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통해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족감이 커질수록 더 많은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게 되어 결국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공공도서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보적 프로그램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 경험,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커뮤니티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호혜적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설비 및 시설의 이용은 사람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강의실, 무선 네트워크 등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및 설비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및 설비의 이용은 단순한 장비의 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지식, 정보, 경험,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물리적 재화의 공유를 연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신뢰성 있는 관계 형성, 커뮤니티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물리적 재화의 교환이나 공유보다는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익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하게 진화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의 공유경제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전문지식이나 개인의 경험, 기술의 공유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유·무형의 자원 공유가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커뮤니티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할수록 공유경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람들 상호간의 호혜, 신뢰성 확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신뢰의 형성, 호혜성의 확보를 통해 사람들의 공유 의도를 상승시키고,

이를 사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유도하여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공유경제가 확보하지 못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유경제의 사회적 순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유경제에의 참여 혹은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어 내고 이것이 가져오는 집단적인 이익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에 공유를 하는 것의 효용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기능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공유경제와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윤승 (2014).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15(6), 77-100.
- [2] Albinsson, P. A. & Perera, B. Y. (2012). Alternative marketplaces in the 21st century: Building community through sharing event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 303-315.
-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9, 7. 17.). Sharing economy. Available:

- <http://www.ala.org/transforminglibraries/future/trends/sharingeconomy>
- [4]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9. 6. 11.). Futur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 Available: <https://www.alia.org.au/futureoftheprofession>
- [5] Belk, R. (2007). Why not share rather than ow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1, 126-140.
- [6] Bellotti, V. et al. (2015). A muddle of models of motivation for using peer-to-peer economy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Seoul, Korea, April 18-23, 2015, 1085-1094.
- [7] Biswas, R. & Pahwa, A. (2015).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the Indian landscape*. India: Ernst & Young LLP.
- [8] Böcker, L. & Meelen, T. (2017). Sharing for people, planet or profit? analysing motivations for intended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23, 28-39.
- [9] Botsman, R. &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NY: Harper Business.
- [10] Cusumano, M. A. (2015). How traditional firms must compete in the sharing economy. *Communications of the ACM*, 58(1), 32-34.
- [11] Davis, F. D. (199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characteristics, user perceptions and behavioral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38(3), 475-487.
- [12] Evans, D. S. & Schmalensee, R. (2019. 6. 7.). Markets with two-sided platforms. Available: <https://ssrn.com/abstract=1094820>
- [13] Gansky, L. (2010). *The Mesh: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haring*. New York, NY: Penguin.
- [14] Garlick, R. (2018. 6. 11.). *Ramble of the day: The Library is a Sharing Economy Pioneer*. Available: <http://rossgarlick.com/2014/01/16/ramble-of-the-day-the-limits-of-the-sharing-economy/>
- [15] Hamari, J., Sjöklint, M., & Ukkonen, A. (2015).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9), 2014-2059.
- [16] Hawlitschek, F. et al. (2016).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an experimental framework. Paper presented at the 3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ublin, December 11-14, 2016.

- [17] Ikkala, T. & Lampinen, A. (2015). Monetizing network hospitality: Hospitality and sociability in the context of Airbnb. In Proceedings of the 18th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Social Computing, Vancouver, BC, Canada, March 14-18, 2015, 1033-1044.
- [18]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2015). Better Together: libraries in the Sharing Economy. Working paper. Chicago, Illinois.
- [19] Iqbal, S. S., Toulson, P., & Tweed, D. (2015). Employees as performers in knowledge intensive firms: role of knowledge sha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6(7), 1072-1094.
- [20] Kester, J. (2019. 6. 8.). New platform tourism services: Or the so-called sharing economy. In Proceedings of Market Intelligence and Competitiveness, March 9, 2017. Available: [http://cf.cdn.unwto.org/sites/all/files/pdf/new\\_platform\\_tourism\\_services\\_programme\\_itb\\_17\\_0.pdf](http://cf.cdn.unwto.org/sites/all/files/pdf/new_platform_tourism_services_programme_itb_17_0.pdf)
- [21] Lambertson, C. P. & Rose, R. L. (2012). When is ours better than min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ltering participation in commercial sharing systems. *Journal of Marketing*, 76(4), 109-125.
- [22]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NY: Penguin Press.
- [23] Matofska, B. (2019. 6. 6.). What is the Sharing Economy? Available: <http://www.thepeoplewhoshare.com/blog/what-is-the-sharing-economy/>
- [24] Merriam-Webster Dictionary (2019. 4. 10.). Share. Availabl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haring>
- [25] Mies, G. (2019. 6. 11.). Libraries Need to Lead the Sharing Economy. Available: <http://www.techsoupforlibraries.org/blog/libraries-need-to-lead-the-sharing-economy>
- [26] Ozanne, L. K. & Ballantine, P. (2010). Sharing as a form of anti-consumption? an examination of toy library user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9(6), 485-498.
- [27] Palos-Sanchez, P. R. & Correia, M. B. (2018). The collaborative economy based analysis of demand: Study of Airbnb case in Spain and Portugal.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3(3), 85-98.
- [28] Rifkin, J. (2001).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New York, NY: TarcherPerigee.
- [29] Sacca, M. (2014). Building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Tech Cocktail*, October 28, 2014. Available: <http://tech.co/building-trust-sharing-economy-2014-10>.

- [30] Stremersch, S. et al. (2007). Indirect network effects in new product growth. *Journal of Marketing*, 71, 52-74.
- [31] Sundararajan, A. (2016).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ass and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32] Sung, E., Kim, H., & Lee, D. (2018). Why do people consume and provide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Sustainability* 2018, 10, 2072.
- [33] Wietzman, M. (1984). *The Share Economy: Conquering Stagfl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 Y. S. (2014). A study on sharing economy of the ICT development. *The e-Business Studies*, 15(6), 77-100.